강단 있게 도전하고 깨부순, '러블리' 박보영

따뜻함과 신념 지닌 명화 역 연기 변신
"대선배 이병헌과 맞대응 연기 무서워"
"러블리 이미지 탈피…말투·톤 신경 써"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우리가 아는 박보영은 없다. 앙증맞게 작은 체구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러블리한 매력을 내뿜던 박보영을 기대했다면 낯설 것이다. 따뜻하면서 심지가 곧고, 부조리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명화'를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하지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허우적대지 않는다. 스타일을 바꿨지만 자신에게 어울리게 적당히 리폼한 모습이다. "낯설지만 거부감 없게 표현하고 싶었다"는 그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순간이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박보영이 출연한 전작들과 확연히 결이 다른 작품이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온통 잿빛이다. 살기 위해 황궁 아파트를 찾아오는 외부인과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사수하려는 입주민의 싸움, 왕처럼 군림하는 주민 대표 영탁(이병헌)은 러닝 타임 내내 긴장감을 유발한다.

"제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선택한 작품이에요. 예전에는 이미지가 국한된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말할 때도 애교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황궁 아파트 602호에 남편 민성(박서준)과 단둘이 사는 명화는 대지진 이후에도 차분하게 생존을 고민한다. 갑자기 들이닥친 외부인도 집에 들이고 서슴없이 먹을 것을 나눠줄 정도로 정도 많다. 희생 정신 가득한 간호사로서 신념을 잃지 않는다.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강단 있게 소신을 밝히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런 명화를 보고 집단 행동에 반기를 드는 민폐 캐릭터라고 한다.

"민폐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친구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화해가는 민성을 붙잡고 싶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까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 끝까지 명화를 응원하고, 잘 그려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명화는 남들이 모두 '예스(yes)'를 외칠 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객은 작품을 보는 내내 각 등장 인물들에 자신을 대입해 보게 될 텐데, 누구도 명화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순 없을 것이다. 박보영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재밌어서 이 작품을 했어요. 시나리오 보면서 3번 정도 멈췄거든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민성이처럼 할까. 휩쓸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일까' 고민했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명화처럼 총대를 멜 수 있을까 되뇌었지만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작품의 마지막 대사는 모든 질문의 답을 내려준다. 시나리오를 보는 박보영에게도 큰 울림을 준 대사였다. 박보영은 담담하지만 여운을 주는 연기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엄태화 감독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까지 고민한 부분이다.

"마지막 촬영 날 엔딩을 찍었거든요. 제가 그 대사에서 얻은 게 많은 만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스스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표현을 바꾸거나) 대사 없는 것도 해보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또 다른 산은 이병헌이었다. 영탁과 맞대응을 해야 하는 신은 걱정 거리였다. 대선배를 마주 보고 팽팽하게 연기하려니 주눅 드는 기분이었다. 눈치챈 이병헌이 '그 부분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신경 써서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감독님이 만날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머리 뻗치고 (꾀죄죄한) 영탁의 사진을 제게 주시면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갈치 보듯이 하라고 하셨어요. 왜 갈치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적응하라고 하신 거죠. '난 할 수 있다. 난 무섭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 사진은 익숙해졌는데 실제로 마주했더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빛이 확실히 무서웠어요."(웃음)

명화를 연기하며 드문 드문 박보영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도 고민이었다. 특유의 콧소리와 높은 목소리 톤이 명화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신경 쓰인 것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숨을 때 튀어나오더라고요. 민성에게 '들어와'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들어왕'이라고 들렸어요. 감독님은 그렇게까지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크게 들렸던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후시 녹음 때 다시 했어요."

박보영은 자기 연기엔 부족한 게 더 크게 보인다고 했지만, 작품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단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라는 점이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였다.

"너무 기대고 싶은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대작이 제 필모그래피에 들어왔다는 게 든든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굵은 글씨체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뉴시스

투바투, 美 레코드산업협회 '골드'
K팝 앨범 인증 BTS 이어 2번째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 50만 유닛(units) 이상 판매

4세대 K팝 간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았다.

RIAA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발매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이 이날 자로 50만 유닛(units) 이상 판매된 앨범에 주어지는 '골드'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음반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음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방탄소년단 이후 RIAA 앨범 부문 인증을 받은 첫 K-팝 아티스트가 됐다.

RIAA는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 골드(50만 이상), 플래티넘(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200만 이상), 다이아몬드(1000만 이상)로 구분해 인증한다. 앨범 부문의 경우 음반(실물/디지털) 판매량,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이뤄진다.

최근 북미 시장 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위세는 다방면에서 확인된다.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상반기 미국 내 CD 판매량('Top CD Album Sales') 1위를 차지했다. 실물 앨범과 디지털 앨범 판매량을 합산해 집계하는 '톱 앨범(Top Albums)'(Total Sales)' 부문에서도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미드나이츠(Midnights)' 뒤를 이어 2위에 자리했다. 또 지난 5월 두 번째 월드투어를 통해 북미에서 처음으로 스타디움 공연장에 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해당 공연장 입성과 동시에 해당 공연 2회 모두 매진시켰다. 당시 1일 차 공연은 '라이브 뷰잉'을 통해 32개 국가/지역의 총 1303개 영화관에서 중계되기도 했다. 아울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 인기 그룹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 프로듀서 겸 DJ 앨런 워커(Alan Walker), 힙합 뮤지션 코이 르레이(Coi Loray), 팝 아티스트 샐럼 일리스(Salem Ilese)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도 협업했다.

5일 오후 8시30분(한국 시간 6일 오전 10시30분)에는 미국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위버스 라이브와 유튜브 채널(미국 외), Hulu(미국)를 통해 생중계된다.

블랙핑크 7주년, K팝 걸그룹의 역사…재계약 향방 '촉각'

이달 말께 YG와 재계약 여부 판가름 예상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오는 8일 데뷔 7주년을 맞는다.

K팝 역사에 획을 그은 그룹의 7주년이라는 의미 자체도 크지만, 네 멤버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K팝 그룹 마의 7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지가 큰 관심이다.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이 최장 7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연예인 전속계약서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데뷔 7년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많은 그룹들이 변곡점을 겪었다.

현재 블랙핑크는 오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까지 월드 투어 '본 핑크'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업계는 이달 말에 블랙핑크·YG 재계약 건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계속 협의 의지를 갖고 있을 경우 계약 만료 이후에도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경우도 있다.

◆블랙핑크, 곧 K팝 걸그룹의 역사

블랙핑크는 2016년 8월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붐바야'를 내세운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으로 데뷔했다.

화려한 외모로 대형 기획사 YG를 등에 업고 주목 받은 팀. 블랙핑크를 평가절하 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문구'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전까지 네 멤버 각자의 상당한 피·땀·눈물이 섞여 있었다.

배우를 꿈꾸다 비교적 뒤늦게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수(28),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제니(27),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로제(26), 태국이 고국인 리사(26)까지. 이들은 오랜 기간 연습생 생활을 했고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학창 시절의 추억이 쌓이지 않았다.

2020년 공개된 넷플릭스 최초 K팝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Blackpink: Light Up the Sky)는 '셀럽 블랙핑크'가 아닌 인간 김제니(제니)·김지수(지수)·로제(박채영)·리사(라리사 마노반)를 톺아봤다.

'소금. 산. 지방. 불'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던 한국계 미국인 캐롤라인 서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가장 많이 할애되는 건, 어린 시절 집을 떠난 멤버들의 마음이다.

다큐에서 로제가 집,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연습생 생활을 쉽지 않았다. 멤버들은 매월 소속사 대표와 프로듀서 앞에서 개인·그룹평가를 받았다. 연습생 초반에는 '경쟁'에 몰두하기도 했다. 하지만 블랙핑크 멤버들은 연습생 생활을 긍정했다. 제니는 "K팝을 K팝답게 만드는 건 연습생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네 멤버가 어느 날부터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 순간, 이들은 가족이 됐다.

블랙핑크 팀 이름은 가장 예쁜 색으로 통하는 핑크색을 살짝 부정하는 의미다. '예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의 의미를 담았다. 반대로 검은색처럼 무대 위 강렬함을 뽐내지만 사랑스런 매력도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 특별한 상품 앞에 '블랙'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특별한 걸 그룹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외모만이 이들의 무기가 아니라는 증거다. 특히 정규 2집 '본 핑크'는 강렬한 힙합을 기반삼았다. 앨범에 실린 8개 트랙 중 3곡이 19금 판정을 받을 정도로 더 센 기운을 강조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블랙핑크 다섯 번째 멤버'라고 입을 모으는 YG의 간판 프로듀서인 테디 박은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에서 "블랙핑크는 유니크하며 다양한 문화의 결합"이라고 했다. 매체 노출이 극도로 적은 그는 블랙핑크를 위해 이 다큐에 출연했다.

양현석 프로듀서는 블랙핑크 론칭 당시 "예쁜 멤버들을 뽑았다고 음악까지 예쁘고 귀엽게 하고 싶진 않았다. YG의 스타일을 지켜가면서 다양한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블랙핑크가 가고 있는 길은 곧 K팝 걸그룹의 역사다.

◆재계약 두고 각종 설설설

현재 네 멤버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YG 간판 프로듀서로 블랙핑크 멤버들과 꾸준히 호흡을 맞춘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레이블 이적설, 일부 멤버의 해외 에이전시 계약, 개인 기획사 설립 등의 설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없다.

재계약과 관련 YG와 블랙핑크 멤버들은 함구하고 있다. 이전 블랙핑크 멤버들의 열애설에 대해 따로 반응하지 않다가 최근 지수와 안보현과 열애 사실은 인정한 것도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멤버들과 YG가 블랙핑크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K팝 걸그룹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며 향후에도 당분간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월드 투어 일정도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